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7월 27일 (제752호)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동참의식

상반기 해외집회가 모두 끝났다. 이제부터 교단차원의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청소년수련회, 여름캠프, 하계산상집회, 그리고 9월 8일 서울광장집회, 10월 3일 상암동 집회까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동참의식’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누군가’라는 어머니는 꼭 ‘아무도’라는 아들을 낳는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다들 빠지고 미루면, 결국 ‘아무도 안 하는 꼴’을 낳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집안에 대사(大事)가 있으면 장남만 일하는 게 아니다. 출가외인인 딸도, 객지에 나간 아들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협조해야 한다. 혼자할 수 있는 일도 참여하고 협력하면 일이 훨씬 쉽고 빠르다.

우리에게 있는 일련의 일들이 그렇다. ‘본부’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스스로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무엇을 협력해야 하는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동참해야 한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동참의식, 협력정신을 강조한 말이다. 동참의식은 ‘나’가 아닌 ‘우리’를 말한다. 동참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나’는 안 되는 일도 ‘우리’는 되고, ‘나’는 힘들어도 ‘우리’는 수월하기 때문이다.

‘애들 많으니까 나는 수련회에 안 가도 되겠지.’, ‘나 안가도 기도원에 많이 올 거야.’, ‘추석날이니까 시청광장집회에 나는 안 가도 되겠지.’ No! ‘나부터 수련회 가야지.’, ‘나라도 집회를 위해 전도해야지.’ 라고 해야 한다. ‘우리’가 되려면 결국 ‘나’부터 시작하고 움직여야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게으름은 멸망으로 이끄는 악이다

한 때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한껏 자존심을 드높였던 아르헨티나(Argentina). 그러나 지금은 국가부도의 위기가 지 몰리며 끝없이 침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몰락의 단면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의 거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고풍스런 유럽풍의 건물들이나 조각들, 아름다운 공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충분히 명품도시로 만들어줄 법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도시 관리로 공원은 도처에 개똥천지고, 거리는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시민의식도, 국가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데모가 났다하면 고속도로를 점거한 채 타이어를 불태우기 일쑤고, 공권력은 그런 소요사태에 그저 무기력한 대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키르기스스탄(Kyrgyzstan)에 갔을 때, 미래 대통령을 꿈꾸는 국영 텔레콤 부회장 자미르에게도 이 청소운동을 전개하라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었다. 누군가 나서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면 깨끗해지는 거리를 보며 생각이 달라지고, 동참의식이 생기게 마련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대표적 사례였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어 깨띠를 두르고 매주 월요일이나 한 번씩 아침에 모여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는 운동을 시작하면 거리도 깨끗해지고, 시민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고, 언론이 관심을 보일 것이고, 시나 정부에서

것으로 시작되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동참한 이 운동에 상가의 시민들이 나와 조기에 적힌 교회 이름을 보고는 어느 교회인지 묻는 등 관심을 표하며 격려했고, TV 카메라 기자가 나와 청소운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하였다. 또한 목발을 짚고 있던 성도가 길거리에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고침 받아 걷는 역사도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성을 울리며 박수를 치는 광경이 참으로 이채로웠다.

약 1시간에 걸쳐 상가도로와 중앙공원 주변을 청소하며 비록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참석한 성도들 모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목사님은 참여한 성도들, 특히 어린 성도들을 격려했다.



파라과이 청소운동 전개(엔까르나시온 상가주변 거리)

응뿐이다. 그들 스스로도 우민(愚民)화 정책의 결과라 고백한다. 목사님이 그토록 교육을 설교하시는 이유를 바로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국가가 교육에는 힘쓰지 않고 오히려 중우(衆愚) 정치로 기득권만 유지하려 한다면, 단언컨대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아르헨티나 뽀사다스(Posadas)에서 파라과이(Paraguay) 엔까르나시온(Encarnacion)으로 국경을 넘는 다리위에 지체중인 차 안에서 목사님은 이 선교사에게 청소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셨다.

“아르헨티나를 보니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하더라. 게으른 국민의식을 바꿀만한

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두 번하고 관둬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이 나라가 새롭게 개조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은 우리 교회를 알리고 전도에도 효과적인 운동이다. 오늘 이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선교사는 즉시 빗자루와 쓰레받기 300개, 쓰레기봉투 등을 준비했다. 또한 한국에서 보낸 구호물품 중에서 조끼를 개조하여 성도들에게 입혔다.

우루과이(Uruguay) 성도들까지 참여한 청소운동은 약 200여 명이 두 조로 나뉘어 도시의 거리 및 공원주변을 청소하는

산교육이 따로 없었다.

“오늘 함께 청소하니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가? 마음까지도 상쾌하고 보람을 느낄 것이다. 더러운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곧 무책임이요, 반드시 제거해야할 악이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내 주변부터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매사 부지런히 책임을 다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남미에 우뚝 서는 나라로 성장해갈 것이다.”

목사님이 그토록 TV 방송을 통하여 강조하셨던 교육이란 화두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현장이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거리에서 안수를 받은 후 목발을 들고 걷고 있다



청소운동은 2세들에게 산교육의 현장이었다



TV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에 나섰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 (눅6:38~39)



복받기를 원하면 주는 자가 되라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올해가 목회 30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한 가정에서도 여러 일들을 당하면서 깊이 인생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 내린 결론은 ‘욕심을 버리고 남에게 베풀면서, 주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 6:7-8)는 성경 말씀이 요즘 가슴에 절절히 와 닿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죽을 것인가, 부자로 살 것인가’ 하는 명제의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로 사는 길이 무엇이나 하면, 남에게 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은 절대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플러스(+) 삶이요, 나아가 곱하기(×)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누르면 더 들어가지요? 거기에 흔들기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 30년을 돌아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회나 생활이나 아주 풍족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안 합니다.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는 성도들

있더군요. 그것을 다 거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녁 지을 쌀도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당시 감리교 권사였던 이상순 장로(인천교회)가 전화를 해서 햅쌀 한 가마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놀라운데 연이어 상도동에 사는 집사가 쌀통에 쌀 한 가마니를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쌀 1/3 가마 주고 순간 쌀 두가마니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것도 지극히 작은 쌀 반 가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찾는

형제자매들을 무료로 먹이겠다고 결심하고, 사택에 있던 쌀 반

가마를 내려 보낸 후 기도원을 내려가다 한국건설의 정 장로 부

부를 만났습니다. 취지를 설명했더니 흔쾌히 동참을 표했고, 그들은 쌀 200가마를 차로 실어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수천 명을 무료로 먹이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주면 줄어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삶을 산 자들이 잘 되고 잘 살게 된 것을 성경도 입증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식민지 백성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서 의인이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셨고,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은 정확히 짚어줍니다(행10:4).

다비다라는 여제자 역시 노인과 과부에게 많이 준 자입니다(행9:36). 그런 그가 죽자 그 곳의 제자들이 급히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받은 사랑을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흔들어 눌러 넘치게 되돌려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이 세계를 교구화 삼을 수 있었던 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를 무료로 전 세계에 준 것 때문입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으로 테이프 10개를 보내려면 일인당 십만 원 가량이 들었

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세계 어디서든 신청만 하면 무료로 줬습니다. 다

들 어찌려고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축복하셨고, 비디오파가 들어간 지역마다 오늘날 예루살렘 지경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외아들을 주셔서 인류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준다는 것은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나는 줄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웃음을 주는 것,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흔들어 눌러 넘치게 오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이뤄집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가끔 시비 붙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때 욕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욕이 흔들어 눌러 넘치게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말이라도 살갑게 하면 반찬이 달라질 것이고, 남편에게 웃음이라고 선사하면 퇴근 때 스카프 한 장이라도 선물 받

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면 뜻하지 않게 더 큰 것으로 되돌려 받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갈6:7). 남에게 주는 것은 꼭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삶이 복되다(행20:35)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때, 주

줄 게 없는 게 아니라 줄 마음이 없는 것이다

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은 갈멜산 지역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털을 깎는 큰 잔치에 그의 우양을 늘 돌봐준 다윗이 먹을 것을 청하자 다윗을 무시하며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진수성찬으로 먹으면서 말입니다. 자기만 알고 나눌 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나발은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에게 개죽음을 면치 못할 처지였으나 결국 자기의 수명을 재촉하여 며칠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나발을 죽이려 군대와 함께 올라오는 다윗을 내려가 영접하며 안둔시키고, 먹을 것을 제공하더니 남편 나발이 죽은 뒤 다윗의 아내, 곧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주는 지혜가 보상하는 영광이 이 정도입니다.

언제 갚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갈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그 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을 나누지 못하고, 주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경건은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1:27). 우리 모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죽을 것인가

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제가 정말 많이 주었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가난한 목회자들과 이웃에게 정말 많이 주었습니다. 시계 풀러준 것은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이고, 옷이며, 자동차, 심지어 건물까지 다 주었더니 오늘날 하나님이 제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훨씬 많이 주셨음을 새삼 알게 됩니다. 이젠 제 자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히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인천 송의동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벌써 27년 전쯤의 일이지요. 어느 날 저녁 무렵, 교회 사택에 앉아 있는데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해주던 사람에게 있는 쌀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쌀가마에 1/3 정도 쌀이

총회장 이초석 목사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피카소 作 황소머리

파블로 피카소. 스페인 출신의 20세기 대표적인 천재 화가다. ‘큐비즘’이라 하여 전통 미술이 2차원적인 표현의 한계에 머물러 있을 때, 그 형식의 틀을 깨고 입체적인 표현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오늘날 현대 미술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몇 년 전, 그의 한 미공개 작품이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93억에 팔린 일이 있다. 그의 명성을 짐작케 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필자는 그의 작품이 아직까지 낯설기만 하다. ‘마리 테레즈 발테르의 초상’, ‘꿈’, ‘아비뇰의 처녀들’... 그의 대표작들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듣고 또 서적을 들춰봐도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쉽게 와 닿지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필자에게도 정말 엄청난 감동을 준 피카소의 작품이 하나 있다. 바로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그것이다. 어느 날 피카소는 산책하던 길에 우연히 고물상을 지나게 된다. 그곳에선 한창 버려진 고물 자전거를 분해하여 폐기 처분하는 와중이었다. 그는 그 때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 바로 사진속의 이 작품이다. 그런데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의 재료가

정말로 신선하지 않은가? 아주 낡고 녹슨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 전부인 것이다. 여기에 그 어떤 기교나 인공적인 꾸밈도 가하지 않았다. 본래 그 모습 그대로의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려질 쓰레기일 뿐이었지만) 자전거 안장에다 핸들을 거꾸로 붙여 완성시켰다. 말 그대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우리에게 ‘반전(反轉)의 미(美)’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술이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던 피카소의 말처럼,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단지 우리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가치란 내가 어떤 마음, 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하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진다. 제 아무리 소중한 것도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가벼이 여기는 이에게 가치는 더 이상 논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 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에게 도전이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헤밍웨이의 마지막 역작이었던 ‘노인과 바다’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But Man is not made for defeat!”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얼마 후면 또 수련회가 다가온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총회장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지옥까지 맏시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자가 물었습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자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한 번 보여주세요. 구경하고 나서 결정할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먼저 천국 구경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천사들과 앉아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오래 앉아있었다 보니 이게 좀 따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엘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보다 지옥이 좋았습니다. 예쁜 여자들도 있고, 술집도 있고... 이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갈림길로 다시 돌아와 지킴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옥이 체질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더럽고 불로 달군 듯 입구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아까 본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때는 관광 비자로 왔었고, 지금은 영주권 받고 와서 그렇다.” 그냥 유머로 듣고 웃으면 안 됩니다. 실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보기에 아름답고 황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역은 끔찍하고, 추하고, 고통스런 곳입니다. 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이 절제해야 하고, 나를 버려야 하고, 더는 나를 죽여야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또한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예수중심편집실



::심리칼럼::

황금률을 넘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리던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죽마고우 같은 친구와 결별을 선언할 때도 있으며,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가족들과 멀어지게 될 때도 있다. 사람은 누군가와와의 만남,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된다. 어떤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성격이나 취향, 좋아하는 것 등을 알아내고 맞춰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즉, 투자비용보다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관계는 형성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겨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을 ‘사회적 교환이론’이라고 한다.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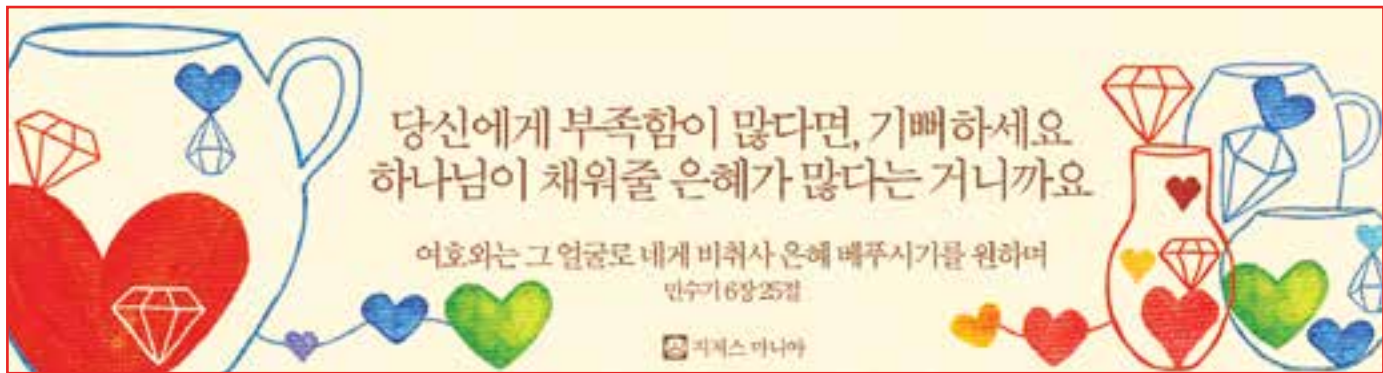
적으로 관계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와 같이 투자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비용이나 이득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 많이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적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더 큰 만족을 보인다고도 설명한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6:31)’며 ‘황금률’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해준 만큼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그 이상의 대우를 바란다. 일례로 친했던 단짝친구와

싸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하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보상을 기대하면 불완전한 관계가 된다. 투자와 이득이 비례하지 않으면 순간 깨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마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해도 낙심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값없이 받았으니 거저 주는 황금률을 넘는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다. 박선인 sunin91@naver.com



귀를 기울이세요

올해는 나라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지난 2월, 대학생들이 리프트에 OT를 갔다가 체육관이 붕괴되어 10여 명의 신입생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로부터 두 달 뒤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는 수학여행을 떠났던 수많은 고교생들의 죽음을 초래하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5월에는 경기도의 한 터미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장성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2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부대에서 병사가 동료들에게 충격을 난사한 사고, 세월호 구조작업을 돕던 소방 헬기가 도심에 추락하여 구조대원 5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정부와 반란군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추락하여 3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도 있었지요. 이런 사건사고들을 접하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은혜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라디오 DJ와 여러 예능을 통해 입담을 과시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우먼 김신영에게 뜻밖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책이나 대본 등,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다.

그녀가 어느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그런데 청취자의 사연을 낭독해주는 코너에서 갑자기 난독증세로 사연을 한 줄도 읽지 못하게 됐고, 이 방송사고로 인해 몇 년간 방송 출연의 기회도 잃게 되었다. 이때 선배였던 정선희는 격려와 함께 용돈을 건넸고, 김신영은 그 돈으로 위인전집을 사서 큰소리로 읽으며 난독증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선희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의 사연을 물 흐르듯 읽어냈을 때,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훗날 정선희가 가정사로 사람들의 못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김신영은 연예대상에서 수상소감을 밝히며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준 정선희에 대해 당

당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표했던 김신영에게 정선희는 되돌려 받은 사랑이 더 크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나는 이 사연을 들으며 묵묵히 생각해 봤다. 세상에 은혜를 베푼 자가 더 적을까, 아니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더 적을까? 물론 감사하는 자가 훨씬 적고,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더 귀한 것 같다.

필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통해 응급한 환자와 중국인 환자들을 상담한 건이 1만 건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직간접적으로 감사를 표한 환자들은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서운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한 10명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이었나 하는 감탄의 마음은 크다. 10명의 문동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한 자는

고작 1명뿐이었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다. 몸이 나은 것은 10명이지만 영혼의 구원까지 얻을 수 있었던 자는 마지막까지 감사를 잊지 않은 1명이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인가 말이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를 향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열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눅15:29)라고 불평한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허락 받은 은혜 안에 있었음에도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그가 과연 뒤늦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은 탕자보다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 은혜는 주는 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자의 감사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므로 누릴 은혜의 크기는 과연 얼마인가?

하인명

renming@daum.net

그러나 천지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철학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길은 굽고 긴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은 자폐스펙트럼의 최상위 기능을 가진 질환에 속하며,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의 문제, 행동문제를 보이거나 지능이 정상범위에 있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 지능과 언어발달에 지체가 없기에 연령에 맞는 대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 언어의 이해가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눈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한 가지 일부분에 관심을 보이며 일상의 작은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스퍼거 증후군 학생은 교우관계에서 표현이 서투르고 행동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 친구들의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이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마음씨가 착하고 온순한 경우가 대부분

인지라, 특히나 대인관계에서 큰 상처를 겪은 뒤로는 회복이 어려워 일생을 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 최근 임병장 사건을 보아도 가벼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사회적인 미성숙과 서투름으로 조직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모습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성인들에게서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자들은 혼자 껍쭉 참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

주변에 아스퍼거 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아이가 늦되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사회적인 발달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또한 가정에서도 아이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하여 쉽게 무시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

하고 사회와 세상을 받아들이는지를 세심히 들여보고,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이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안정된 곳을 인식시켜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이 부족한 나 자신도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처럼 안타깝고 답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만남의 축복

‘종교개혁’ 하면 누구나 마틴 루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런 대업을 마틴 루터 혼자서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루터의 친구인 필립 멜랑흐톤(Philipp Melanchton)입니다.

멜랑흐톤은 루터보다 열다섯 살 아래였지만, 루터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려 할 때,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네.”라고 힘을 주었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롬8:31)”라는 성경구절을 적어 격려하는 조연자였고, 루터가 세상을 떠난 1546년 이후 비텐베르크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루터란주의를 대표하는 루터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죽은 다음까지 이어져 두 사람은 유언에 따라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무덤 안에 묻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변화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신원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줬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후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란 나이가 같은 또래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 하셨고, 숨기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주님으로부터 ‘친구’라고 불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위해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37절)